

“새정치, 비전 제시 못하고 타성에 젖어”

새정치 원내대표 퇴임 우윤근 인터뷰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7일 퇴임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해 10월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중도 하자로 급작스레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유의 ‘소통과 설득의 리더십’으로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새해 예산안 처리, 이완구 국무총리 인준안, 김영란 법 등 굵직한 현안을 여당과의 협상을 통해 무난하게 처리했다.

임기 막판 연금 개혁안이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좌초되기는 했지만, 우 원내대표는 현안 해결과 관련해 여야의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소통과 신뢰를 통한 협상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일보에는 7일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우윤근 의원을 만나 소회를 들었다.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다.

- 지역 정치권의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이 강하다.
- ▲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하지만 일방적인 몰락이 능사가 아니다.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 등 제도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 개헌 가능성이 크지 않다.
- ▲ 권력과 자본, 기회의 독점구조를 깨는 권력구조 개편 없이는 호남의 미래가 없다. 어렵다고 포기할 수 없다. 적극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개헌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 역할을 해 보겠다.
- 일부 호남 중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 ▲ 호남에 중진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중진으로 소임

연금개혁 靑 입김에 좌초

개헌특위 미뤄진게 아쉬워

- 지난 6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안이 좌초된 가장 큰 원인은.

- ▲ 청와대의 개입 때문이다. 국회에 맡겼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청와대와 일부 친박(진 박근혜)들의 입김이 작용했다.
- 국민의 기대에 비해 연금개혁안이 미진하다는 지적도 있다.
- ▲ 시간이 부족했지만 사회적 대화합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재협상을 해서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
- 소통의 리더십이 빛났지만 여당에 너무 양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 ▲ 그렇지 않다. 밖에 나가서 큰 소리치고 투쟁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설득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 복기해보면 여당이 더 많이 양보했고 우리가 얻은 것이 많다.

- 7개월 임기 동안 가장 아쉬운 점과 보람을 꼽는다면.

- ▲ 국회 개헌특위 구성이 미뤄진 것이 가장 아쉽다. 7~8번 여야가 합의했지만 청와대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여당이 청와대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 세월호 특별법을 유가족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처리한 것이 가장 보람 있었다. 여기에 여야 합의로 새해 예산안 처리하면서 지역 국고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도 기억에 남는다.
- 새정치연합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 계파 패권주의도 있었지만 패배의 타성에 젖어 있는

호남중진 일부 제역할 못해

천정배 ‘뉴 DJ’ 필요하다

을 다하지 못했으니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나도 예외가 아니다. 민심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다.

- 천정배 의원이 ‘뉴 DJ’를 내세우고 있다.
- ▲ 동의하고 필요하다. 하지만 정치 신인도 잘 선발해야 한다. 성공한 관료 등 스펙으로 영입하는 것은 과거 방식이다.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상전이 된다. 이제 정치는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민생에 천착하고 소통을 통해 비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 천정배 의원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입장은.
- ▲ 막을 길이 없지 않다. 그의 개혁 성향과 진정성을 믿는다. 선의의 경쟁도 호남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조언한다면.
- ▲ 진정성은 있는 분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정무적 판단에 있어 귀를 열어야 한다. 정무라인을 확대하고 친노 계파주의를 넘어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 120억 투입 시민제안 사업 선정 돌입

467건 1100억 신청

광주시가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 중 120억원 규모의 내년도 사업 선정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7일 “내년도 예산 중 120억원이 투입될 시민참여예산제에 시민들이 467건 총 11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신청함에 따라 소관부서의 사업 구체화와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최종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 참여에 의한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해 도입한 ‘시민참여예산제’는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의 실행을 위해 일정한 예산을 편성한다.

광주시는 내년도 시민참여예산으로

120억원을 책정하고 최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비 5억원 이하의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접수 결과 교통건설분야 338억원(121건), 문화관광체육분야 306억원(44건), 환경생태분야 173억원(115건), 복지건강분야 86억원(60건)이 신청됐다. 또 도시재생분야 74억원(45건), 일반행정분야 69억원(52건), 경제산업분야 45억원(23건), 일자리투자분야 9억원(7건) 순이다.

접수된 제안사업은 소관부서의 사업 구체화와 타당성 검토, 예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편성과 의회 심의를 모두 통과하면 2016년 예산에 편성돼 시행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사회통합지원센터 개소 광주시 사회통합지원센터(센터장 김상봉 전 남대 교수) 개소식이 7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제2학생회관 앞에서 열렸다. 윤장현 광주시장, 지병문 전남대 총장 등 내빈들이 현판식을 갖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수도권 규제 완화로 생산유발효과 2조 감소”

전남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현재 추진논의 중인 4개 과제에 대한 전남지역 생산유발효과가 최대 2조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취업유발효과도 최대 1만2000명 이상 줄어든다.

7일 전남발전연구원 조상필 지역행복연구실장과 나경열 책임연구위원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전남지역 영향력 분석 및 대응방안 - 추가논의 4개 과제 중심으로 -’의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실장 등은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한 규제완화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4개 추가논의 과제는 ▲수도권 유턴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 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

용 배제 등이다.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1~7차) 456개 과제 중 139개 과제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결론이다.

4개 과제에 대한 전남지역 영향력을 투자규모 100%와 60%가 감소한다는 가정 하에 각 유발효과와 최대, 최소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최소 1.1조~최대 1.9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최소 4191억~6984억원, 취업유발효과는 최소 7699명~최대 1만2834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연구팀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살기기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역발전 성과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선 지방육성 후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낙후지역 우선 재원배분이나, 지역 활성화 지역 선정 등 지역별 발전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지역등급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면적·인구 대비 사회간접자본 자원과 사업 타당성 분석 시 사회적 활인을 적용 등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개발 지원제도’ 개선과 ‘지역고용창출형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집중 육성 등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식장조용합금금 조성 및 지역중심 연구의 중앙정부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지역자원의 연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비수도권의 핵심 지역인재 확보를 위해 병역특례 인원 우선 할당 및 기업 생산·연구활동과 연계된 ‘(가칭)지역별 숙련기술진흥센터 설립·운영’도 주장했다.

조 실장은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에 법적 구속력과 의무적 행위를 부과하는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 개선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협력과제를 발굴하는 정기적 회의체인 ‘(가칭)중앙·지방 협력회의’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크루즈선 카지노 내국인 출입 추진”

유기준 장관, 활성화 대책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7일 “크루즈선의 선상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크루즈산업 활성화 대책과 마리나산업 전략적 육성 대책을 발표한 뒤 이를 포함한 15개 핵심 성과목표 추진 상황을 공개 브리핑했다.

유 장관은 연내 국제 크루즈 선사 출범을 지원하는 한편 2020년 크루즈 관광객 300만명 유치와 마리나산업 대중화에 따른 신규 일자리 1만2천개 창출 목표를 제시했다.

해수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손잡고 국제 크루

즈선 취항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국내 유망선사 4곳이 해수부와 협의 중이며 올해 안에 1곳 이상이 국제 크루즈 선사 면허를 취득하고, 2만t 이상 중선 선박을 사들여 선상 카지노 허가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취항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특히 카지노와 관련해 “국회에서 내국인 출입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봐서 곧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기준 해수부 장관과 전남·부산·인천·제주·강원 등 5개 지자체는 20일 중국 상해에서 크루즈선사와 여행사 관계자 150명을 대상으로 크루즈관광 설명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

의료광고심의필 제140611-중-59153호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6/7F 라식센터
4/5F 수술센터
2/3F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트롭’ 노인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맞은편 노모양빌딩을 찾으세요

▲ 운영동 방면
▲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시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